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김현주* · 이병훈**

한국노동패널자료 중 1차, 4차, 6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는 416명이다. 남성의 학업성취에 가족 배경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학업성취에는 모의 학력과 직업, 그리고 이 두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영향을 미친다. 남성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부모와 대화정도이다. 모의 학력과 미취업은 각각 독립적으로 여성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의 학력과 미취업은 여성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온다. 고학력이면서 미취업인 어머니의 존재는 여성에게 대안적 역할모델로 작용하여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남녀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없었으며, 사교육비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도 없었다.

1. 문제제기

한국에서의 대학입시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까지 무시험으로 진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만이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통한 지위획득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적 성취는 직업과 연계되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한국도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근대화과정에서 교육적 성취를 통한 지위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더해 가족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통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우세한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다. 고등교육의 공급팽창으로 인해 젊은 세대 인구의 높은 비율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희소가치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야 비로소 높은 지위의 교육적 성취를 달성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지위상승이 가능해진다. 좋은 대학은 한정된 자원이고,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가족의 지원이라고 하는 자원의 투자가 요구되어진다.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 즉 상위계층 출신의 자녀들이 하위계층 출신의 자녀들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는 결과들이 축적되어왔다(Blau & Duncan, 1967; Coleman, 1988;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2004).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서 가족 배경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능력주의(Stevenson & Baker, 1992; 1641)와 기회평등주의의 원칙이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 근대성의 합리적 근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많은 논쟁점을 불러일으킨다.

교육기회의 팽창이라는 변화와 맞물려서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희소성이 감소하게 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방어적 교육투자”의 전략(Thurow, 1972)을 택한다. 이를 위해 위계서열이 높은 고등학교, 대학으로의 진학을 시도하게 된다. 방하남·김기현(2003)은 교육기회의 양적인 계층화는 점차 감소하고, 질적인 차원에서의 계층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2004년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교분석에서 강남권 고등학교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기존 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상위계열의 대학진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득권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을 활용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확산은 사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사교육을 택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가족들은 과외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여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2004)에 의하면 사설학원수의 증가의 대부분은 문리계 사설학원의 증가에 기인하며, 교육투자에서 과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장상수(2004)는 학력성취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여전히 학력성취에서 계급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학력성취에서의 성별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등교육에서의 성별차이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상수(2004)는 한국에서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육적 성취에서 성별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은 쉽게 관찰될 수 있다. 학력성취와 학업성취에서 여학생들의 약진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도권 남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남녀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전교 1등에서 10등 사이에 남학생이 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남학생들의 내신점수가 나빠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신입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도록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4).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서 성별차이는 감소하지만 계급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특히 여성의 교육적 성취에서 가족의 영향은 남성에 비해 더 크다. 이와 같은 성차를 설명하는 가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장상수, 2004). 첫째는 부의 극대화 가설(Becker, 1981)이고 둘째는 평등주의 가설(Buchman et al., 2003)이다. 부의 극대화 가설은 한정된 가족자원을 자녀의 교육투자에 배분하는 경우에 가족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남성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딸보다는 아들에게 교육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가족전체를 단위로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미정(1998)은 한국가족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에서 남성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등주의 가설은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교육의 내재적, 소비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 교육에 대해 평등주의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장상수(2004)는 아버지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에서 성별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설을 통합하면 한국에서 남성의 경우는 하위계층도 아들에게 교육투자를 많이 하므로 교육적 성취에서 계층화를 발견할 수 없지만, 여성의 고등교육에서는 상위계층의 가족은 남녀 구분 없이 투자하지만, 하위계층의 가족은 여성에게 교육투자를 덜하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적 성취에서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에서 가족배경 영향력의 성별차이 존재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의 학업성취에서 가정배경의 영향이 남녀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환경의 변수가 자녀의 학력성취나 학업성취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가족의 환경변수로 주로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직업변수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에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방하남·김기현, 2003)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버지의 교육은 중요한 예측변수인데 비해 어머니의 교육은 중요한 예측변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이정환, 2002).

이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의 학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경력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이 가족환경변수를 아버지의 지표들로 등치(방하남·김기현, 2002; 장미혜, 2002; 장상수, 2004)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학력이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어머니의 직업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환, 2002). 특히 사교육의 팽창과 함께,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은식·김충희, 2003). 학습지원은 대부분 어머니들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고, 대졸이상 부모의 학습지원이 고졸이하 부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이러한 학습지원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문은식·김충희, 2003) 어머니의 고등교육과 직업경력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젊은 여성들이 직업경력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머니의 고등교육이 직업경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딸들에게 교육적 성취의 반(反) 역할모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두 개의 가설들은 성별차이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부의 극대화 가설은 최근에는 그 설명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아들에게 의지한다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보다는 딸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우세한 요즘에 아들에 대한 선별적 교육투자를 통해 가족의 부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사용되기 힘들다. 또 다른 가설인 교

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을 적용한다면 교육투자에서 성별차이는 감소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에 대한 남녀평등주의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차이를 드러내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이미정, 1998). 그렇다면 성역할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남녀의 차별적 가정환경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을 모두 고려하여 가정 환경적 요인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학업성취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것인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어머니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을 갖지 않은 유형의 가정환경변수가 자녀, 특히 딸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의 연구목적은 위계서열이 높은 대학으로의 이행단계에서 필요한 좋은 성적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교육투자가 학업성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액수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 기존연구

1. 가족의 계층적 지위

가. 부모의 교육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학력성취와 학업성취로 나뉜다. 고등교육의 기회나 교육단계별 이행으로 대표되는 학력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세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계층재생산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정환, 2002; 방하남·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장상수, 2004).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계층화를 통해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코호트분석을 통한 역사적인 변화(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4)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개인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교육단계별 진입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경우(김기현, 2004)가 있다. 코호트 분석을 통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의 학력성취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만(장상수, 2004) 그 영향력은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방하남·김기현, 2003). 개인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분석하는 연구들도 교육의 이행단계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계층적 지위의 영향력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기현, 2004).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계층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교육단계가 높아질 때 오히려 감소한다는 독특한 한국적 특성에 대해서 김기현(2004)은 대학원 진학이 학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업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계층화에서 부모의 영향이 오히려 하위(고등학교)단계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방하남·김기현(2003)의 연구결과는 진학여

부 자체보다는 진학경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교육기회의 팽창과 대부분의 중등교육 학령의 청소년들이 학생인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단계로의 진입여부자체보다는 어떤 위계를 지닌 대학에 진학하였는지(장미혜, 2002)가 중요해진다. 상위위계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업성취(성적)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한 일련의 기존연구들을 학력성취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일관된 경향을 갖지 않는다(이현주 1999; 윤경희, 2001; 장미혜, 2002; 방하남·김기현, 2002). 방하남·김기현(2002)은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능 서열분포도상 상위범주의 대학(과)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장미혜(2002)도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으면 자녀들의 수능성적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비해 윤경희(2001)와 이현주(1999)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성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교육을 지표로 사용(방하남·김기현, 2002; 장미혜, 2002; 장상수, 2004)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지표로 사용(이현주, 1999; 윤경희, 2001)하기도 하였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고, 부의 교육수준은 관련이 있으나 모의 교육수준은 관련이 없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 부모의 직업 및 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한 요소인 아버지의 직업위세와 경제 수준이 자녀의 교육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학력성취와 학업성취에서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이정환, 2002; 구인회·김순규, 2003; 김기현, 2004; Haveman & Wolfe, 1995; Duncan & Brooks-Gunn, 1997). 아버지의 직업위세와 경제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직업위세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위세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이정환, 2002; 방하남·김기현, 2002)들도 자녀의 교육계층화에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의 소득이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이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영애·김정미, 2002).

그러나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어머니 취업의 영향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영향이 없다는 연구(정태인·유홍준, 2002) 결과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기도 하고(이정환, 2002), 긍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하기도 한다(이현주, 1999). 어머니의 직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응익, 1997). 어머니의 취업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대졸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육소영, 2003)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머니 취업의 동기가 무엇인가, 취업을 통한 만족감(Hoffman, 1974)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머니의 취업이 가족분위

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정태인·유홍준, 2002) 등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자녀의 학업과 학력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의 교육적 성취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영화, 1991; 한향문, 1982).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의 직업이나 소득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대표한다고 보고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게다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지 않는 비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가 중요한 상호작용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Tallichet와 Willis(1986)는 어머니가 고학력이며 직업이 있는 경우는 그 딸이 고학력을 성취하거나 취업을 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현주(1999)는 모의 경력은 딸의 성역할 정체감에 차이를 가져오고, 모의 학력과 성역할 정체감도 딸의 성역할 정체감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딸의 성역할 정체감이 딸의 진로포부에 가장 의미 있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은 직접, 간접으로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직업지위, 가족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의 교육재생산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이 그들이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려고 한다.

2. 가족 구조

가. 부모와 동거

가족구조가 이혼이나 별거이면 대학진학 가능성이 낮고 학력연수가 낮다(구인회·김순규, 2003). 편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부족(구인회, 2002; McLanahan & Sandefur, 1994)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력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인회와 김순규(2002)는 가족소득과 빈곤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편부모의 가족구조는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편부모 가족은 자녀와의 관계변화와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지도, 학업준비와 통제와 같은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게(Amato, 2000; McLanahan & Sandefur, 1994) 되어 자녀의 교육성취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편부모 가족은 기존의 친족과 친구 등 사회적 연계망의 손실을 가져오고(Clingempeel, Colyar, Brand & Hetherington, 1992),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등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여서 사회적 연계를 구성하지 못한다(Mclanahan & Sandefur, 1994). 이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형제수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자녀들에게 분배된다. 이때 자녀수가 많으면 한 개인 자녀에게 배분되는 가족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Blau & Duncan, 1967; Fetherman & Hauser, 1976; Blake,

1981). 가족내 자녀수는 자녀의 지위획득모델에 포함되어지며,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lau & Duncan, 1967; Fetherman & Hauser, 1976). 이미정(1998)은 가족 크기가 작은 가족에서는 형제수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크기가 큰 가족에서는, 특히 남자 형제수는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사교육비와 가족의 사회적 자원

가. 사교육비

사교육(강수홍, 2001; 송수호, 1994)과 부모의 학습지원(McLanahan & Sandefur, 1994)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이 있다는 기존연구결과들이 있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 공교육의 불신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7차 교육개혁’ 이후 도입된 ‘수행평가’, ‘수준별 교과과정’은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내신과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사교육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므로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박현주, 1998; 정영애·김정미, 2002). 정영애·김정미(2002)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하였고, 박현주(1998)는 학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득과 학생의 사교육기회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교육의 경험여부나 사교육비의 투자정도가 자녀의 성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이전중, 1992; 이정환, 2002; 정영애·김정미, 2002). 오히려 사교육은 가족환경과 자녀의 성적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정환, 2002; 정영애·김정미, 2002).

나. 사회적 자본

학업성취에서 학교환경보다 가정환경이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은(Coleman et al. 1966; Jencks, 1972) 부모의 배경변수가 자녀와의 직접,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되고(Coleman, 1988) 이 과정에서 자녀의 지적 능력 발달과 관련된 활동과 환경에 투자됨을 발견하였다(Coleman, 1990).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자녀활동에 대한 감독 등을 포함한다(McLanahan & Sandefur, 1994). 이외에도 유력한 친인척의 존재, 교육환경으로서 좋은 학군에 거주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유력인사의 존재는 자녀의 교육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방하남·김기현, 2002; 방하남·김기현, 2003; 김기현, 2004). 김기현(2004)은 상위전문직 종사친척의 존재는 교육성취에 영향이 있으나 교육이행단계의 상위로 갈수록 영향이 감소됨을 발견하였다. 도시지역거주나 8학군 거주와 같은 거주지역과 교육성취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기존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3; 방하남·김기현, 2002; 장미혜, 2002; 이미정, 1998). 이정환(2002)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하는지 분석하였으나 예상과는 달

리 아버지의 가르침이 오히려 자녀의 낮은 성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밝혀졌다. 어머니의 취업이 가정분위기를 매개로 자녀의 학업태도와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정태인·유홍준, 2002)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진로와 관련된 대화정도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부모자녀간 유대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4. 자녀의 성과 고등학교 유형

기존연구들은 교육적 성취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이미정, 1998; 김영화, 2001, 장상수, 2004). 그러나 시계열적 분석에 의하면 교육성취에서 성별차이는 점차 감소한다(김영화, 2001; 장상수, 2004). 이미정(1998)은 한정된 가족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아들에게 우호적인 성차별적 자원배분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성취가 낮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성취에서 성별차이가 감소함과 동시에 성별차이의 계층별 차이도 감소함을 발견하였다(김영화, 2001; 장상수, 2004). 이러한 차이 감소에는 교육기회의 팽창이나, 자녀수의 감소,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성취에 있어서 고등학교 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김기현, 2004; 방하남·김기현, 2003; 방하남·김기현, 2002).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방하남·김기현, 2002), 상위교육단계로 진입하면서 가정배경이 교육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입함에 있어서는 진학경로로 분석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계층화는 두드러지게 구조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방하남·김기현, 2003).

III. 연구방법

1.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가공하여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을 1차년도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0가구를 추출하여 2003년도에 6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6차 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은 77%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6차년도 개인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6차년도 개인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수는 425개이며 이중 9개의 missing을 제외한 41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는 6차 KLIPS 자료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유력한 친척의 존재에 관한 변수와 부모에 관한 정보들과 관련된 변수들은 1차와 4차 KLIPS 자료를 연계하여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족배경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들 고등학교생들이 속한 가구 번호를 추적하였다. 이들 가구구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성격을 찾아내고,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에 해당하는 개인번호를 다시 알아내어 개인자료정보에 있는 부모의 학

력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고등학생 개인자료와 통합하였다.

분석대상의 속성별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인적 속성별 분포

(단위 : 명)

구 분		계
성별	남학생	220 (52.9%)
	여학생	196 (47.1%)
학년	1학년	82 (19.7%)
	2학년	160 (38.5%)
	3학년	172 (41.3%)
학교 성적	상위 20%	103 (24.8%)
	중상위 20%	141 (33.9%)
	중간 20%	144 (34.6%)
	중하위 20%	21 (5.0%)
	하위 20%	7 (1.7%)
현주소	서울	102 (24.5%)
	비서울 대도시	128 (30.8%)
	도지역	186 (44.7%)
고교 유형	인문고/특목고	289 (69.5%)
	여타 실업고	127 (30.5%)
부모 동거여부	양부모	374 (89.9%)
	편부/편모/조부모 등	42 (10.1%)
합 계		416 (100%)

2. 변수선정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성적이다. 전반적인 성적을 5분위로 구분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상위 20%안에 들어가는 성적분포에 해당한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속성변수들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변수들,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개인 속성변수에는 성별과 거주지, 고교유형이 해당된다. 성별은 남자를 1로 코딩하여 여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거주지는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지역, 비서울 대도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고교유형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1로 코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가 기준변수가 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는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부의 직업위세,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그리고 모의 학력과 모의 취업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택하였다. 부와 모의 학력은 학력년수로 전환하여 사용되었으며, 부의 직업위세는 Ganzboom et al.(1989)에 의해 개발된 the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은 취업상태를 기준변수(취업=1, 미취업=2)로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과 학력년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두 변수 값을 곱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소득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연구들이 보고(Duncan et al., 1998)하고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로그(logarithm)를 취해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의 교육투자, 사회적 자본과 그 외의 통제변수로는 사교육비, 양부모와의 동거여부, 유력친인척 인사의 존재, 동거 형제수를 선택하였다. 사교육비는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해 사용하였다. 유력인사가 친인척중에 있으면 가변수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동거 형제수는 가구구성원분포에서 찾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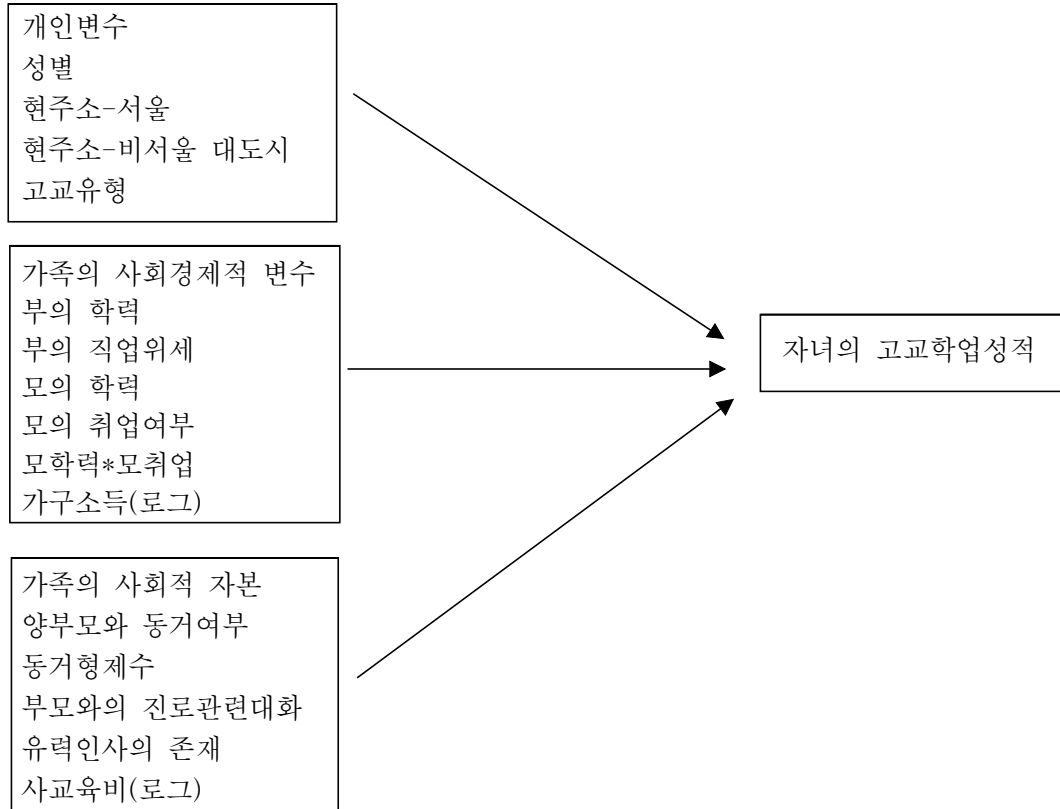
<표 2>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비고
[개인 속성 변수]				
- 성별(가변수)	416	0.529	0.500	남자=1, 여자=0
- 현주소①: 서울(가변수)	416	0.245	0.431	
현주소②: 비서울대도시(가변수)	416	0.308	0.462	도지역=준거집단
현주소③: 도지역(가변수)	416	0.447	0.447	
- 고교유형(가변수)	416	0.695	0.695	인문고/특목고=1, 실업고=0
[부모 변수]				
- 부의 학력년수	414	11.73	3.11	부친 교육년수
- 부의 직업위세	358	37.79	11.98	부친 직업의 SISI지수 ¹ 환산
- 모의 학력년수	396	10.75	2.76	임금/비임금소득 자연대수
- 모의 취업여부(가변수)	385	1.37	0.482	취업=1, 미취업=2
- 모의 학력*취업여부	385	14.84	6.852	학력년수 * 취업여부
- 부모와의 진학대화빈도	416	2.20	0.609	전혀안함=1, 약간=2, 자주=3
[가구 변수]				
- 가구소득(로그값)	387	7.81	0.862	근로·금융 등 연간 가구소득 합계의 자연대수
- 유력인사친척(가변수)	353	0.220	0.415	유=1, 무=0
- 양부모 동거여부(가변수)	416	0.899	0.302	양부모동거=1, 그 외=0
- 동거형제수	414	0.534	0.662	
- 사교육비(로그값)	391	2.29	1.90	가구당 지출 사교육비의 자연대수
[종속 변수]				
- 학교 성적	416	3.75	0.942	성적 5분위등급 1~5점 (역코딩: 5점= 상위 20%)

주 1) Ganzboom et al.(1989)에 의해 개발된 the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

3. 분석모형

[그림 1] 가족환경 변수와 자녀의 학업성적 관련변수 모형



IV. 결과 및 분석

1. 가족배경변수의 영향력 약화

기존연구들이 자녀의 교육 계층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던 가족배경 변수들과 자녀의 고등학교 성적은 크게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자녀의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자녀간 진학과 진로에 관한 대화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 외에 가구소득이 낮고, 양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3). 고교유형에서도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 고교유형의 영향이 이후 다른 가족배경변수들과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현저히 약화되는 것(모형 1에서 모형 2, 모형 3)으로 보아 기존 연구(김기현, 2004)에서 발견한 교육단계 이행의 초기 단계에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후 상위교육단계 이행에서는 가족변수의 영향이 감소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방하남·김기현(2002;

2003)이 밝힌 바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있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 성적에 대한 측정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 5분위 성적평가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즉 실업계나 인문계나 각 학교에서 상위 20%에 드는 학생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고, 표본이 정상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논리적으로는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적분포가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집단의 성적분포의 분산도를 검증해 본 결과 두 집단의 분산도가 같다는 가정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로 인해 성적에 의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성적을 과대보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3>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별	-.029	-0.033	-0.019
현주소- 서울	0.063	0.050	0.006
현주소- 비서울 대도시	0.019	-0.003	0.000
고교유형	0.198***	0.176**	0.118+
부 학력		0.104	0.083
부 직업위세		0.019	0.008
모 학력		0.078	0.071
모 미취업 (취업=1, 미취업=2)		0.079	0.093
모 학력* 모 취업		-0.045	-0.248
가구소득(로그)		-0.071	-0.120+
양부모와 동거			1.821+
동거 형제수			-0.844
부모와 진학대화			3.475**
유력인사 친척			-0.239
사교육비(로그)			1.496
F (sig)	5.056***	2.570**	3.031***
Adj. R ²	0.038	0.048	0.096
사례수	416	313	287

주: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노동패널데이터(KLPIS) 1차, 4차, 6차 자료.

이번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등학교 성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이 성별에 따른 교육성취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장상수, 2004),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성별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지, 아니면 성별에 따라 가족배경 변수가 차별적으로 영향(장상수, 2004)을 미친 결과에 의해 가족배경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인지 밝혀보기 위해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변수

회귀분석결과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전체 표본과 유사한 관계양상을 보이거나, 여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는 가족 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4).

남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관련 변수의 모형은 전체표본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전체표본과는 달리 고교유형이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변수 중에서 부모와 진학관련 대화정도가 가장 유의미하였다. 이외에 낮은 가구소득과 양부모와 동거하는 가족구조가 아들의 좋은 학업성취와 유의미한($P<0.10$) 관련을 맺는 변수이다. 기존연구에서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지적된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적 위세, 모의 취업여부는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연구들은 높은 가구소득은 높은 교육성취를 가져온다고 결론 맺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는, 비록 관계가 약하지만, 기존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관련 변수나 개인의 진로포부와 같은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분석모형에서 가능한 해석은 사교육비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소득 가정의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사교육비와 가구소득은 피어슨 단순상관계수가 0.373($p<0.001$, $n=205$)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모형에서 두 변수가 동시에 고려될 때는 사교육비의 효과는 사라지며, 가구소득의 영향만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극대화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부의 극대화 가설은 가족자원이 한정적인 저소득층 가족에서는 가족 전체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 딸보다 아들에게 선별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가설이다(이미정, 1998). 그러나 이번 연구의 t-검증 결과는 성별에 따라 사교육비의 투자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딸인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가구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성적증진의 효과를 나타내야 할 남자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가구소득이 높은 가족에서 더 나쁜 결과를 보인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가구소득이 남학생의 성과 역방향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능력주의 가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외에는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업성취를 통해 계층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反)학습모델로 작용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은 이번 연구에서 시도해 볼 수 없었다. 이밖에 동거형제수, 사교육비 투자의 영향은 가구소득과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고교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나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변수들과 기타 통제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 3에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지만 직

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표 4>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차이

	모형 (1)		모형 (2)		모형 (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현주소- 서울	0.089	0.032	0.135	-0.085	0.094	-0.122
현주소- 비서울 대도시	0.035	0.001	0.042	-0.078	0.016	-0.051
고교유형	0.233**	0.150+	0.190*	0.166*	0.129	0.094
부 학력			0.127	0.116	0.022	0.164
부 직업위세			0.000	0.054	0.003	0.050
모 학력			-0.196	0.533*	-0.100	0.495+
모 미취업 (취업=1, 미취업=2)			-0.288	0.809*	-0.171	0.810*
모 학력* 모 취업			0.445	-0.987*	0.345	-1.047*
가구소득(로그)			-0.135	0.022	-0.169+	-0.078
양부모와 동거					0.151+	- ¹
동거 형제수					-0.089	-0.006
부모와 진학대화					0.264**	0.149
유력인사 친척					0.042	-0.109
사교육비(로그)					0.072	0.153
F (sig)	04.963**	1.603	2.102*	1.876+	2.571**	1.784+
Adj. R ²	0.051	0.009	0.058	0.050	0.129	0.070
사례수	220	196	161	152	150	137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 p<0.1, * p<0.05, ** p<0.01, *** p<0.001.

주 1) 여자고등학생은 모두 양부모와 동거하므로 여자의 모형에서는 이 변수가 상수를 구성한다.

자료 : 한국노동패널데이터(KLPIS) 1차, 4차, 6차 자료.

부모와의 진학이나 진로에 관해 대화를 많이 할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와 동거함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성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한다. 가족의 사회적 자본 중 하나인 가정분위기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연구(정태인·유홍준, 2002)가 밝히고 있다. 편부모 가족은 자녀와 상호작용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McLanahan & Sandefur, 1994; Amato, 2000)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기대 역시 감소하게 된다(McLoyd, 1998). 가족구조 자체가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진학에 대한 대화정도는 학업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이후에

도 여전히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 대화정도는 남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적 분석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서 독립이 매우 중요한 과업임(Erickson, 1963)에도 불구하고 독립과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을 획득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이현주, 1999; 291).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들도 부모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진학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된다.

여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회귀분석결과는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표 4).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모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와의 대화정도가 여자 고등학생의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적에는 매우 미미한 영향(가구소득만 유의미함)을 가졌던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여자 고등학생의 모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족환경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 1과 가족의 사회적 자본과 기타 통제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 2에서는 고교유형이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모든 변수가 고려된 통합 모형 3에서는 고교유형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모의 학력과 모의 미취업, 모의 학력과 취업의 상호작용 변수가 여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후 가족의 사회적 자본과 기타 통제변수가 통제된 모형 3에서는 모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특기할 만한 결과는 모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부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는 정 반대라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딸의 학업성적이 높다. 그러나 모의 미취업이 모의 학력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모의 미취업이 독립된 변수이었을 때와는 달리 딸의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독립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의 고학력과, 독립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의 미취업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딸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매우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입학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보인다. 한국이 입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기준보다는 국가 주도적인 평가기준과 입시전형제도를 지닌 교육체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하고(Cicourel and Kitsuse, 1977; 291), 고등학교 과정까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의 선발이 이루어지는 후기선발방식의 교육체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한다(Cummings, 1980).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가족배경적 변수의 영향력이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소¹⁾하는 경향(Kerckhoff, 1995, 1998; 김기현, 2004)이 있기 때문에 후기선발방식

1) 교육단계의 이행이 진행될수록 가족배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김기현(2004)는 Mare (1980)가 주장한 후기 단계로 갈수록 가족배경의 이질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Muller & Karle(1993)이 주장한 생애과정을 통해 자녀의 독립성 증가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한국에서도 상위교육단계로 이행될수록 가족의 배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의 교육체계를 지닌 한국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학업성취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입시 단계에서 개인간의 경쟁은 더욱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쟁의 일면에는 소위 학부모의 '치마바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김영화, 1992).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은 가사활동의 주요 범주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정태인·유홍준, 2002).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보탐색, 학부모 연계망의 유지, 공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이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업모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취업모들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죄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영화, 1991). 따라서 어머니가 미취업상태가 자녀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연구결과도 미취업한 어머니의 딸이 학업성적이 더 우수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의 미취업상태가 아들의 학업성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미취업이 자녀의 학습지원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력이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현재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중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부모를 동일시 대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이 단독으로 딸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의 방향은 매우 다르다. 한국의 여성 고학력 미취업률은 매우 높다(육소영, 2003). 이들은 성편견적인 노동시장의 장애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취업상태에 대해 불만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어머니가 자신의 취업상태에 대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Hoffman, 1974), 고학력 미취업 상태는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고, 미취업 상태인 어머니의 딸은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발견하였다.

고학력의 미취업상태인 어머니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서 자녀인 딸의 성취동기와 학업수행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학업성적이 낮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자녀인 딸의 수준에서 어머니의 역할모델을 학습함에 있어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여성들의 취업의사는 매우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 취업기회의 확대라는 경제적 요인이외에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로 인하여 여성들이 취업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남성우호적인 성향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통한 전문직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는 매우 위계서열이 높은 특정 학과에 진학하여야 가능하다. 이러한 진로포부를 지녔다면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으면서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어머니의 존재는 딸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고무시키는데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V.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에 부모의 가정환경적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부모와 자녀가 진학과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정도였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자본의 유무, 가족구조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이다. 가족의 외형적 조건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인 대화정도가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크게 다르다. 남자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대화정도와 학업성적과 관련성이 큰데 비해, 여자 고등학생은 모의 학력과 취업여부가 중요하였다. 어머니의 높은 학력과 어머니의 미취업상태는 딸의 학업성취에 각각 독립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어머니의 상대적인 고학력과 어머니의 미취업상태의 상호작용효과는 딸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고학력과 어머니의 미취업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효과는 딸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적 역할모델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재생산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적 변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장상수(2004)가 발견한 여성의 경우,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한 경향과 일치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실직 상태인 많은 사례수가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어 사례수가 적어졌다는 것도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된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자료는 하층계층에 편포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가족배경변수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아 가족환경변수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학업성적을 측정하는 방식도 가족환경적 변수의 영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학업성적을 5분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한 측정방식은 학업성적의 분산도를 매우 좁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간의 경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좀 더 분산도가 큰 모의고사 성적이거나 수능성적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면 가족배경적 변수의 영향력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수능점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표준화된 형태가 아닌 절대점수 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절대점수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연도별 차이, 수능 총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5분위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바로 이 점이 종속변수의 분산도를 좁게 만드는 제약이 된다.

참고문헌

- 강수홍(2001). 「학원수강 효과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구인회·김순규(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의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 5-32.
- 김영화(1991).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성취.” 「여성연구」. 9(2).
- _____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20(4): 173-197.
- _____ (2001). 『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 김영화·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교육학연구. 37: 155-172.
- 김응익(1997).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은식·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현주(1998).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송수호(1994).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소영(2003). “성역할 사회화와 사회제도에서의 남녀평등.”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대학내 성에서의 양성평등』 워크샵.
- 윤경희(2001).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1(1): 137-162.
- 이미정(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1): 63-77.
- 이전종(1992).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2003).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현주(1999).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모녀의 심리·배경요인과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7(3): 279-321.
- 장미혜(2003).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

국사회학」. 36(4): 223-251.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정영애·김정미(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인문논총」. 9: 113-130.

정태영·유홍주(2002).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유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1): 269-297.

한향문(1982).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 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논총」, 17권.

통계청. 2004. 『』

Amato, P. R.(2000), “The Consequence of Parental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87.

Becker, G.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lake, J.(1981).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 421-442.

Blau, K. and Duncan, O.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Buchmann, C., T.A. DiPrete and T.A. Powell.(2003). “Do Rises in Parental Resources Explain the Growing Female Advantage in U.S. Higher Educ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RC28 meeting of ISA held in Tokyo.

Cicourel, A.V. and Kitsuse, J.I.(1977). “The Social as a Mechanism of Social Differentiation.” in J. Karabel and A.H.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lingempeel, W. G., Colyar, J. J., Brand, E. and Hetherington, E. M.(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Grandparents: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Pubertal Status Effects”. *Child Development*. 63. 1404-22.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_____.(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leman, J.S., Campbell, E.Q., Hobson, C.J., McPartland, J., Mood, A.M., Weinfeld, F.D. and York, R.I.(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Cummings, W.(1980). *Education and Equality in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Duncan, G. and Brooks-Gunn, J.(eds.)(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uncan, G. Yeung, W.I., Brooks-Gunn, J. and Smith, J.R.(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06-423.

- Eric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atherman, D. L., and Hauser, R.M.(1976). "Sexual Inequality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in the U.S., 1962~197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2-483.
- Ganzboom, H., Harry, G., De Graaf, P.M., and Treiman, D. J.(1989).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Haveman, R. and Wolfe, B.(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Publication.
- Hoffman, L.W.(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 Jencks, C.(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Mare, R.D.(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37): 295-305.
- McLanahan, S. and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uller, W. andKarle, W.(1993). "Social Selection in Educational System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9: 1-23.
- Stevenson, D.L. and Baker, D.P.(1992). "Shadow Education and Allocation in Formal Schooling: Transition to University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639-1657.
- Tallichet, S.E., and Willis, F.K.(1986). "Gender-role attitude change of young women: Influential factors from a panel stud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3): 219-227
- Thurow, L.C.(1972). "Educ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66-81.

